

# 고급포장제조에서 패키지디자인까지 전담

21세기 종합포장전문업체로 힘찬 도약



- 1981.12. 10. 신우상사 설립(도매업)
- 1986. 7. 1. 사업장 변경(제조, 도매)
- 1989. 2. 27. 시설투자(기계도입)
- 1990. 9. 13. 한일케이스기계 인수
- 1990. 11. 1. 사업장 이전(제조)
- 1991. 3. 20. 인쇄기 도입  
(HEIDELBERG TWO COLOR)
- 1993. 8. 22. 4면 자동 테이핑기 도입
- 1993. 2. 30. 신우상사에서 (주)신우로 상호변경
- 1993. 10. 9. 경기도 용인군 사육 착공
- 1994. 8. 82차 지함 및 원형 지함 개발
- 1994. 10. 타원형 지함 개발
- 1995. 11. 의장등록 32건(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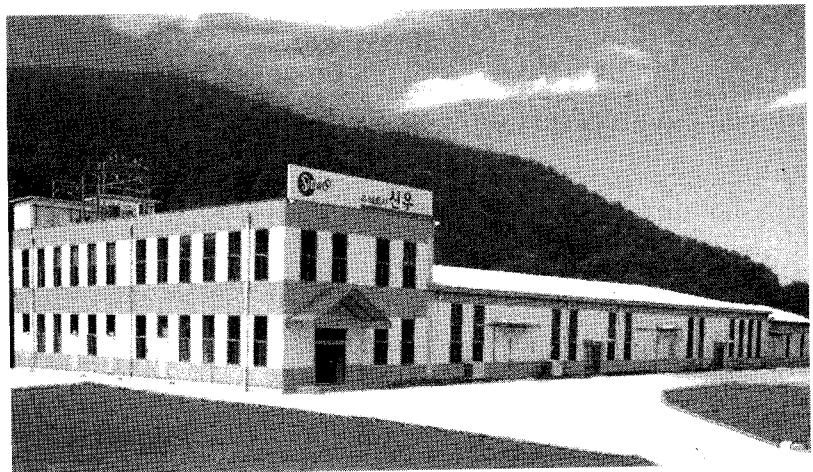
우리 생활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은 제품의 질이나 양보다는 얼마만큼 실용적이고 눈에 띄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몰리고 있다. 이는 각 산업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기능이 비슷한 여러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현 시장의 성향과 경제적 풍요 속에서 생활적·문화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꾸준히 증대될 것이며 향후 제품의 생명은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의 독창성과 실용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성향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각종 생산업체마다 포장

부서와 디자인부서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설 디자인연구소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용인군에 위치한 (주)신우는 15년전 소규모 포장자재와 소모품 도매업으로 출발해 현재에는 고급포장제조에서부터 패키지디자인 분야까지의 통합을 추진하며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본사와 공장이 있는 용인공장과 구로구 독산동과 군포 2개지역에 소규모 공장을 두고 점점 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주)신우의 용인공장은 영업부, 생산부, 관리부, 자재부, 구매부, 디자인 부서를 두고 업무를



▲ (주)신우의 용인 본사 및 공장

진행함은 물론 각 공장을 관리하며 (주)신우의 본가역할을 하고 있다. (주)신우의 특징이라면 본사에 제작실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서는 생산업무와 관련된 부서라기보다는 (주)신우에서 필요한 기계나 설비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통해 만들어낸 부서이다. 이 부서의 기계제작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파견, 신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직접 개발에 착수해 (주)신우의 이름으로 국내에 선진적인 신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지관제품이 접지가 안되는데 비해 접지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왔던 지관을 이용한 타원형 고급포장을 제작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제품이다.

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인식의 미비와 재정적인 문제로 자체적인 디자인부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1세기의 미래형 고품위 패키지의 생산이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주)신우는 국내에서의 고급포장의 시장성을 확신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고 이러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신우는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KOEX에서 열린 국제식품기술전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그 전시회에 참가한 카다로그에는 대부분 (주)신우가 패키지디자인에서부터 고급포장까지를 담당한 제품을 선보여 전시회 기간 내내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



▲ 개성있는 디자인의 (주)신우 제품(좌측 타원형 지관).

심을 받기도 했다.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이처럼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 고급포장의 설비와 생산량이 있어 국내 최고의 위치에 선 (주)신우는 태평양화장품, 태평양식품, LG화학, 동서식품, 태우화장품, 오스카화장품 등 국내 장업체에 다량 진출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기업에서 제출한 디자인에 따라 지관을 생산하는 업무에만 그쳤지만 2년전쯤부터 디자인실을 설치하고 (주)신우라는 고급포장생산업체의 이미지를 전적으로 책임져나가고 있다. 현재로는 기존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에 치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디자인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종합포장전문업체로 성장할 체비를 하고 있다.

연간 60억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주)신우는 지금까지는 자체적인 제품개발에만 치중해오고 있으나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만큼 각종 단체활동

을 펼쳐 고급정보의 입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인데 현재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정보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에는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에 법인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디자인실의 강부연 실장은 “졸업 후 대기업의 디자인실에서 한 2년간 근무하다가 일본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저희 사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와 선진성을 보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내에서도 제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저 스스로도 기본적인 개념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도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라며 지관회사에서 현장직 근로자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유문종 사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원들의 애사심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수

용으로 현재에는 각 부서가 단합된 모습으로 국내 최고 종합포장전문회사로서의 (주)신우를 그려가고 있다.

“향후에는 디자인실을 보강하고 강남지역에 GIFT SHOP을 열어 영업과 홍보의 부분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SHOP은 (주)신우가 자체개발한 디자인들을 파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지관시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스스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환경 및 재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지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고급스러운 포장재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서는 전략으로 말입니다. 또한 신시장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라는 강 실장은 실질적으로 투자한 액수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앞으로 2~3년 후의 (주)신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 디자인실에서는 기존제품에

대한 의뢰를 받아 디자인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작에서 생산까지 모두 담당하기도 하는데 용인이라는 넓은 공간에 공장과 디자인실이 함께 있어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할만한 제품들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신우는 기존의 포장전문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에만 주력하고 패키지디자인에 소홀했던 것에 비해 고급포장, 옵셋특수인쇄, UV 실크인쇄, 금·은박인쇄는 물론 패키지디자인까지 담당하며 향후 포장업체의 나아갈 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한 결과로 (주)태평양의 150개 포장납품업체 중 업적 부상을 받기도 했다. 또 한가지 (주)신우의 특징이라면 지난 2월 7일부터 5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신우는 앞으로 품질성이나 제품 납기일을 잘 지킬 것과 1년에 1내지 2회정도는 포장관련 전시회에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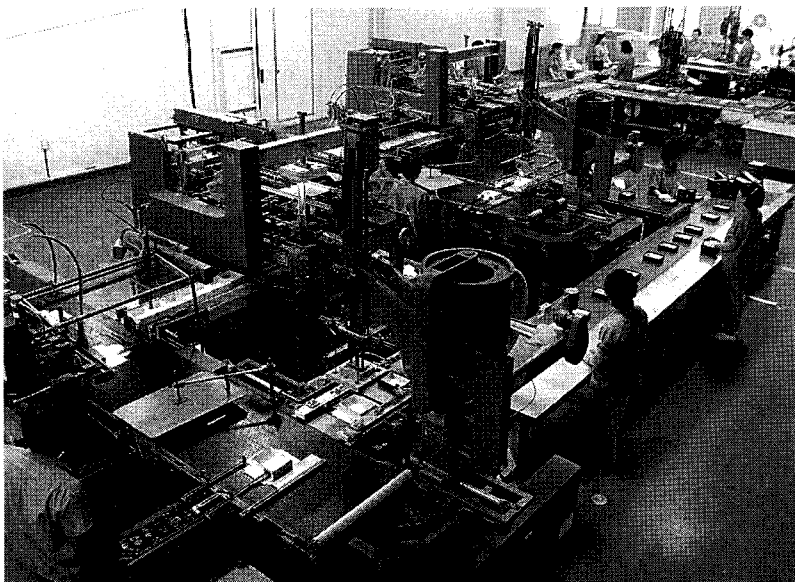
가하고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시키는 등 쉽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산학연계의 차원에서 대기업이 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공모전의 실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타파하여 전문인력의 양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한다.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부피가 큰 지관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물류체계를 확보하여 제품을 공급받아 완포장의 체계까지 갖추어낼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최근 많은 디자인전문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단순히 기존의 디자인의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이라는 분야의 특성을 바로 파악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 포장디자인회사가 생겨야 할 것이다.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 사실이고 자금난 등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신기술개발에 주춤거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주)신우의 능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국내 포장업계의 발전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약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패키지디자인이 포장산업에 있어 제 위치를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포장이 제품의 마케팅부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위치가 확고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의 전 분야에 대한 전문력과 선진기술을 확보해가는 (주)신우의 모습은 정말 든든하고 뿌듯한 업계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윤지은 기자



▲ (주)신우의 제작실에서 개발한 자동화 기계로 이루어진 생산라인

인터뷰 - (주)신우 유문종 사장

# 과감한 투자 국내최고의 고급포장업체로 키워

## 토탈시스템 갖춘 종합포장전문회사로 발돋움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포장에 대한 개념도 없이 좋게 보이는 포장을 제조판매한다는 일념으로 뛰어들었다는 (주)신우의 유문종 사장은 "15년여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 모든 제품에 더 좋고, 더 아름답고, 색다른 것을 만들어 질높은 포장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신기술개발에 전념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종이로 표현이 가능한 훌륭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탈시스템을 갖춘 종합포장전문회사의 발돋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주)신우의 지극이 있기까지를 설명했다.



▲(주)신우의 유문종 대표이사

지난 76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주)신우는 만물상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다양한 부자재 도·소매를 주로 해왔다. 그러던 중 (주)태평양의 개발·구매팀으로부터 지합제조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권유를 받으면서 86년부터 새롭게 포장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신우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국내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갖춘 고급포장업체로 성장한 것은 바로 유 사장의 과감한 투자와 종업원들에 대한 굳은 믿음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 사장은 직원들의 혁신적인 사고와 연구개발하는 자세를 적극 권유하고 그 타당성만 인정된다면 물질·심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포장에서 중요시되는 포장의 기능성, 재활용, 제품환경으로 인한 미적추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일차원적인 단순 포장의 개념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포장이 휴머니티를 증시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포장이 시장의 도구

가 되고 소비자의 욕구(NEED)를 충족시키는 매체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유 사장은 일단 포장산업에 발을 들여 놓은만큼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전 분야에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포장제조에서부터 패키지디자인, 물류체계의 확보까지를 모두 담당하는 종합포장전문회사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포장재의 생산뿐만 아니라 내용물을 수령하여 포장재 생산과 내용물 포장을 연계시키고 궁극적으로 완제품의 물류까지 완전한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

고 있는 (주)신우의 유 사장은 현재 부지확보를 몰색 중이며 독자적인 포장을 개발,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여 향후 21세기에는 매출규모 500억원대의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탄탄한 자생력을 갖춘 회사로 키우기 위해 온갖 정열을 사업에만 투자해 왔다는 유 사장은 그동안 사업은 꾸준히 확장해 왔으나 주변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고 한다. 이에 앞으로는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의 중소포장업체이지만 항상 앞서가는 투자자의지와 선진기술개발로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 사장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았다. 

윤지는 기자